

은혜와 진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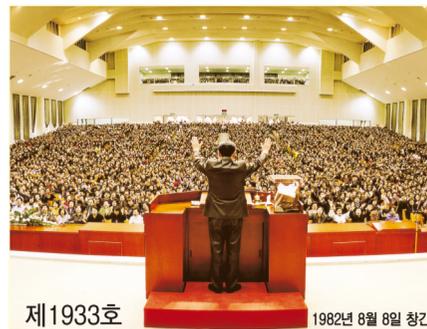
2025년 7월 6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33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저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귀중한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봉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 장 유 정 -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며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저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도록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예비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내려 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스무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20살에 폐결핵과 임파선 결핵 3기를 동시에 판정 받고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주는 여러 가지 알약을 아침마다 공복에 복용해야 했습니다. 약이 독해서 부작용으로 위궤양을 앓고 또 매일 엉덩이 양쪽에 번갈아 주사를 맞느라 나중에는 주사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몸이 병들어 겪는 아픔은 부모라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기에 저 혼자 감당하면서 마음 또한 외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첫사랑의 순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청년기도모임에 참석하여 병이 낫기를 바라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대대로 유교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가정에서 제가 처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서 어렵게 교회에 가서 성전에 앉으면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교회에 다녀오면 부모님이 현관문을 걸어 잠그셔서 집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에 다니느라 몸이 많이 아파도 내색을 못하고 혼자 참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1년쯤 되었을 때, 하루는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거대한 굴뚝이 저의 앞에 세워져 있고 그 굴뚝을 오르고 넘어야 제가 사는 기이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손가락으로 벽돌 틈 사이를 찾아짚으며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은 극한의 공포를 이겨내고 마침내 굴뚝을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하얀 가운을 입은 분이 말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꿈에서 깬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 ‘이제 나는 살겠구나, 살 수 있구나’하는 치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을 담아 금요기도회에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보건소에 들러 약을 타고 주사를 맞는 외과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주사는 그만 맞고, 약도 타온 것만 먹어도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저하된 체력을 회복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7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늦어질 뿐, 분명 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구역에서와 교회에서 21일 다니엘 작정기도와 40일 철야기도를 하였고, 끝나면 또 새로 기한을 정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집에서도 혼자서 ‘찬송가 100곡 부르기’와 ‘주기도문 100번 암송’을 ‘100일 동안’ 하기로 결심하고 실행하였습니다. “하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후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찬송가 30장을 부를 때에 그 가사와 곡조가 제 마음을 감화 감동시켰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느끼며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100일간의 작정기도를 시작한지 39일째가 된 날 저녁에, 찬송가 40장(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을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며 더욱더 기도 응답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때부터는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 특히 노래를 잘 부르며 찬양에 재능이 있는 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좀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경의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이 있는 페이지에 기도 제목을 붙여 두고 수시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100일간의 작정기도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낳게 해 주셨고, 아들에게 찬양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잘 자라 청년부에서 찬양 봉사를 하고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알고 헌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찬송하면서 자주 눈물을 흘렸는데, 가사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여 눈물이 난다고 하여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저는 그 가지로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라고 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당이 가까운 곳에 살면서 더 예배중심의 생활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성남시에서 살았는데, 아들이 출퇴근하는 시간도 감안하여 안양으로 이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알아보는 중에 마침 안양성전 우리 교회 가까이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살고 있던 집이 계약도 되기 전에 먼저 계약을 하였습니다. 막상 계약부터 하고 나니 날짜가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3월 14일, 이사할 집의 잔금치를 날짜가 다가오자 아들과 함께 매일 한 시간씩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부동산중개사무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계약하고, 3월 14일에 잔금을 치르고 그날 입주하겠다는 손님이 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사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것처럼 저의 어려움을 자상하게 살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사한 집에서 안양성전 우리 교회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평신도 성경학교와 성경대학에서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고 더욱 교회와 예배중심의 생활, 말씀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예배 강해설교와, 주중예배 강해설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저의 영혼이 배부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GNTC-TV 설교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재주가 없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다시 경청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월이 곧 달란트이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귀하게 선용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는 제 가슴이 두근거리며 벅차올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바로 시간이었구나!’ 국내선교연합회에 소속하여 복음 전도를 위해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전도를 위한 소망을 주시고 전도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배우며 봉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어려운 일을 겪던 저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온전한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함께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여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구역공과 제3권 (1단원 : 천국 시민이 받을 복) (제5과)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 본문 : 마태복음 5:1-12
- 요절 :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 5:7)
- 찬송 : 416장(새찬송가 294장), 518장(새찬송가 463장)

우리는 지금까지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적인 신앙 자세를 가진 성도가 받는 네 가지 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심령에 천국과 위로를 소유한 자요,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요, 의에 배부름을 얻은 자로서 이제 신앙의 외적인 열매를 맺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섯째 가르침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 5:7)라고 하심으로, 성도들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긍휼을 실천하는 성도가 받는 복이 어떠한가를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사람이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과 같이 인정이 메마르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도 타인의 불행에 가슴 아파하며 희생적인 동정을 베푸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게 있음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비록 타락했더라도 그 마음 속에는 불쌍한 형편에 처한 사람을 보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은 그 근거에 있어서 성도들의 선행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선을 행하되 자기 만족을 위하고, 또는 그런 선행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에서 행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 3:10~12)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긍휼이란 무엇에 근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 본성에 근거한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근거한 긍휼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엡 2:4~7)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 많고 자격없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성도는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하나님에게서 받은바 무한하신 긍휼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2. 성도들은 힘써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롬 12:15)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흔히 남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그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한다거나 사회적인 명망(名望)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긍휼은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좌우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진심에서 우러난 위로의 말을 건네고 그의 고충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곤궁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다소간의 물질과 재능과 사회적인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긍휼을 베푸는 데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약 2:15~16) 하심으로, 긍휼을 베풀되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해 가버린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자신의 생명의 위험과 경제적인 손실을 무릅쓰고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소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마리아인을 긍휼을 실천한 자의 표본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도 사마리아인처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행하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심정으로 힘써 행해야 하겠습니까(고후 9:7).

3.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고 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성도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니다. 누구나 한 평생 사노라면 만사가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매사에 곤궁할 때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남을 멸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가 곤궁에 처하게 될 때 아무도 그를 긍휼히 여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평소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온 사람은 혹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가 그 때까지 긍휼을 베풀 대로 그 역시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 6:38)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긍휼을 베풀고 흠여 구제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더욱 풍성한 긍휼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까닭은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35)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을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인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대리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종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